



◇골무와 바늘꽃이



◇쌈지와 악남



◇이번 전시에는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성스레 만든 주머니·노리개·보석함 등 우리 전통 생활자수품 70여점이 전시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바늘과 실로 엮어낸 인고의 예술

전통생활자수 紙上展

동국대 사회교육원 자수와 학생들 바늘꽃이·항낭 등 70여점 선보여



◇대리니 주머니

자수(刺繡)는 한뼘 한뼘 바늘과 실이 수백 수천 번을 움직여 엮어내는 예술이다. 한울 한울의 색깔이 각각으로 또는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빛깔의 조화를 연출해 내고, 형형색색의 경이로운 조형의 세계를 펼쳐낸다. 그것이 바로 자수의 묘미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쉽게 되지는 않지만 작은 바늘과 비단실이라는 간단한 도구로 삼라만상을 정교하게 묘사해 내는 자수야말로 지극한 정성과 인고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작업이다.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물건을 싸는 작은 보자기, 주머니, 일상복에까지 수를 놓았고, 그 솜씨는 끊임없이 여인들의 손끝으로 이어져 그 생명을 이어왔다. 우리 나라 전통 자수는 염색기술과 색의 조화, 시각적으로는 물론 촉각적으로도 뛰어난 표현 능력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특히 독특한 질감의 독자적인 기법인 자릿수로 구사되는 볼고자수는 다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데, 우리 전통 자수의 뿌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해 온 자수 문화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수 실 만드는 것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통의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다소곳이 앉아 수놓은 열 끝로 수를 놓던 새색시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 전통



◇홍은주씨작 흥배 6곡 병풍 가운데 일부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도 자수 작품을 접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정성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생활 예술인 자수의 맥을 오늘에 계승하고 있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자수와 학생 25명이 19일~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서호갤러리에서 '전통 생활자수전'을 열었다.



◇이민 전시에는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성스레 만든 주머니·노리개·보석함 등 우리 전통 생활자수품 70여점이 전시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번 전시회는 20대 대학생에서부터 30~40대 직장인, 50대 주부, 80대 할머니까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직장일로 가정사로 하루 하루 바쁜 가운데서도 어렵사리 땀을 내 한뼘 한뼘

땀 자신의 꿈과 우리문화의 전통을 수놓아 담은 이들은 작은 골무에서부터 바늘꽃이·풀며 주머니·항낭·노리개 등을 정성스레 만들어 내 놓아,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살뜰하고도 은근한 기쁨을 선사했다.

뛰어난 자수 솜씨를 선보인 홍은주씨의 '흥배 6곡 병풍', 4년째 수를 배우며 관세음보살상 수놓기를 발원하고 있는 현명희씨의 '최초장', 장가갈 손주에게 주려고 만든 81세 장관주 할머니의 '보석함·예단함' 등 정성이 가득 담긴 전통 생활자수 70여점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이번 자수전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작품까지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피부색과 눈빛 생활양식과 언어도 다

른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자수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 저마다의 솜씨를 뽐냈다.

미국인으로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레슬리 화이트 씨는 방학 때마다 한국을 찾아와 수를 배워왔는데, 이번 전시에 '화해도 4곡 병풍'과 '학액자'를 출품했다. 춘천 한림대 영어학당 강사로 매년 방학 때마다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장기자랑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은 경력의 소유자인 미국인 레슬리 밴필드 씨는 '해태총배'와 '쌈지', 꽃나들이 액자'를 출품했으며, 캐나다인 디엔 마크레인 씨는 '초충도 4곡 병풍'을, 일본인 후지타유미 씨는 '귀주머니'와 '꽃나들이 액자'를 선보였다.

학생들과 함께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지도교수 유희순씨는 "학생들의 수실력이 더욱 노련해지면 수불(繡佛) 등과 같은 대형 작품도 함께 해 볼 생각"이라면서 "자고 보잘 것 없는 전시이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그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한국 자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초충도 병풍' 선보인 캐나다인 디엔 마크레인씨

"병풍으로 만들어진 걸 보니 더 예쁘네요."

북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전시장으로 한달을 달려온 캐나다인 디엔 마크레인(33세, 2년 전부터 한국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에 빠진 디엔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은 '초충도 4곡 병풍'이다. 최근 후 매일 1시간씩 1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매주 토요일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자수반'에서 자수를 배운 디엔은 "선생님에게 다시, 다시 라

는 한국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면서 "직접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토록 힘든 자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매일 1시간씩 1년 작업 캐나다에 돌아가 '한국 전통자수 강좌'를 여는 것이 디엔의 장래 계획이다.

디엔이 집에서 수 놓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은 남편 안소니도 올해 초부터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캐나다에서 한국 전통자수 강좌를 여는 데 힘쓴 디엔(오른쪽)과 안소니 부부.

자수를 배웠다. 디엔은 "한국 자수는 보기도 아름답지만 직접 수를 놓으면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며, 앞으로 안경집이나 노리개 같은 소품을 만들어 친구들과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크리스마스나 새해 선물로 직접 수 놓은 북주머니를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자수 예찬론자 디엔의 제안이다. 여수령 기자



◇디엔 작 '초충도'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 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구슈가코시마현 구니와에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오엔) 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현대대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행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